

[사회]

국어·역사 교과서 골라 본다

민간출판사 집필... 2009년 이후 중·고교 도덕 교과서도

교육부, 검정 전환 확대

국어와 역사(국사·세계사), 도덕 중·고교 교과서가 정부가 아닌 민간 출판사 주관으로 집필(저작권)돼 학교급별 2009~2010년 이후 일선 학교에서 배우게 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모두 정부가 만든 국정 교과서이나 초등 5·6학년 체육과 음악, 미술, 실과와 3~6학년 영어는 민간이 집필하는 검정 교과서로 바뀐다.

교육부는 2007년 교육과정 개정에서부터 초·중·고교 교과서의 검정 전환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20일 발표했다.

개선 방안이 따르면 국정 교과서인

중·고교 국어와 도덕, 역사를 검정 교과서로 전환하며 초등 5·6학년 체육·음악·미술·실과와 3~6학년 영어를 검정으로 바꾼다.

중·고교 교과서는 일부 실업계 교과(국정)를 제외하면 모두 민간 출판사가 주관해 집필하게 된다. 현재 교과서가 국가가 직접 집필하고 출판하는 국정교과서, 민간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집필하고 국가가 검정, 적격 여부를 관장해 허가해 주는 검정 교과서, 국가를 대신해 교육감이 인정도서심의회를 통해 인정하는 인정 교과서로 구분돼 있다.

검정 전환에 따라 이념 편향성(역사), 문법의 일관성(국어), 통일교육의 방향(도덕) 등을 둘러싼 논란의 소

지가 있을 수 있어 전문가의 감수제(자문)가 의무화된다.

교과서 사용 연한(기존 통상 9년)을 5년으로 정해 5년이 경과하면 주기적 정기 검정제를 도입, 교과서를 전면 리모델링할 수 있게 돼 시대적 변화를 교과서에 적기 반영토록 했다.

교과서 개발 자율권 강화를 위해 자율학교(대안학교 등)에 국민공통 기본교과목(주요 10개 교과) 외에는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 없는 인정 도서를 확대, 사용토록 하고 전문계·기타계 고교의 전문 교과목(컴퓨터 관련 교과 13책·예체능 교과 44책·국제전 문교과 25책)은 심의 없는 인정 도서를 허용했다.

연립뉴스

트랜스지방 과다함유 냉동감자 교체 안내 맥도날드 '배짱 장사'

다국적 패스트푸드업체인 맥도날드가 '트랜스지방이 과다 함유된 냉동감자를 교체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문제가 된 미국산 냉동감자를 여전히 사용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문화일보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식약청으로부터 냉동감자 교체 권고를 받은 5개 패스트푸드업체 가운데 4개 업체는 이미 원재료를 교체했거나 조만간 이에 감자튀김 메뉴를 없애기로 결정했지만, 맥도날드는 여전히 트랜스지방이 과다 함유된 냉동감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일보는 이와 관련 "맥도날드가 쓰는 미국산 냉동감자의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아 수차례 교체를 권고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국

에서 매출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미 수입된 재고가 많아 미국 본사에서 쉽게 바꾸려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식약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월 수입 냉동감자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감자를 유지로 코팅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트랜스지방이 포함된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5개 패스트푸드업체에 감자튀김의 원재료인 냉동감자를 교체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KFC는 이달 초부터 이미 수입업체를 교체했고, 롯데리아와 버거킹은 8월부터 트랜스지방이 제로에 가까운 냉동감자를 사용할 계획이며, 파파이스는 아예 기존의 감자튀김 메뉴를 없애고 구운 감자로 대체할 방침이라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장맛비 6월 21일 (음 5월 7일) <전국날씨>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오전부터 비가 오겠다.

구분	날씨	기온
광주	흐리고 비	21~26℃
주요도시	흐리고 비	20~25℃
수도권	흐리고 비	19~23℃
충청	흐리고 비	20~25℃
영남	흐리고 비	21~26℃
제주	흐리고 비	20~24℃
남해	흐리고 비	20~24℃
남부	흐리고 비	19~24℃
서해	흐리고 비	20~26℃
북부	흐리고 비	19~26℃
동부	흐리고 비	20~24℃
남부	흐리고 비	21~26℃
제주	흐리고 비	19~26℃
북부	흐리고 비	17~22℃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남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남해북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5m
남부북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5~3.0m

목포 밀물 < 06:38 썰물 < 12:02
목포 밀물 < 18:48 썰물 < 23:59
여수 밀물 < 01:08 썰물 < 07:27
13:23 썰물 < 19:20

▲해돋이 05:18 ▲해질 19:50 ▲달돋이 11:00 ▲달질 --:--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27(수)
날씨						
최저/최고	21/27	20/26	21/25	20/28	20/29	21/26

서울대 복수전공 의무화

내년 신입생부터

서울대가 복수전공, 연계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 제2전공 이수 의무화한다.

서울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수전공 및 연합전공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짓고 학사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년 간 연평균 437명(복수전공 406명, 연합전공 31명)만 수강하던 제2전공이 대부분 학생들로 확대된다.

서울대가 의무화한 제2전공은 ▲2

개 이상의 기본전공을 이수하는 복수전공 ▲다른 학과(부)의 전공과 연계해 만든 전공을 하나 더 이수하는 연계전공 ▲소속 학과(부)의 전공을 심층적으로 이수하는 심화전공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학생설계 전공 등이다.

서울대는 기존에 운영되던 복수전공의 활성화를 위해 복수전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대의 복수전공자 선발을 추진하고 사범대의 복수전공자 선발을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로 확대하는 한편 선발 기준의 성적 하한선(평점 평균 2.7)을 폐지키로 했다.

연립뉴스

의·치의학전문대학원 경쟁률 4.9대 1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는 지난 15일 2008학년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총 1천260명 모집에 6천181명이 지원해 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3.9대 1)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시험으로 8월26일 실시된다. 의학전문대학원 입문검사는 12개교 840명 모집에 3천947명이 지원해 4.7대 1, 치의학전문대학원에는 6개교 420명 모집에 2천234명이 지원해 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교별 모집인원은 의학의 경우 가천대의 40명, 건국대 40명, 경희대 110명, 충북대 24명, 경북대 110명, 경상대 76명, 부산대 125명, 전남대 110명, 포천중문의대 40명, 이화여대 76명, 강원대 49명, 제주대 40명 등 총 840명이다. 치의학은 전남대 70명, 경북대 60명, 경희대 80명, 서울대 90명, 전북대 40명, 부산대 80명 등 총 420명이다.

황태기자 hwangtae@



6·25 순국학생 위령제 20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암동 중외공원 '광주·전남 순국학생 위령탑' 앞에서 열린 '6·25 순국 학생 위령제'. '광주·전남 호국학생 학도병 동지회'(회장 임병성) 회원 등 130여명은 6·15 당시 순국 학도병 122명을 기리는 위령탑에 헌화 한 뒤 넋을 달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목욕탕 물도 못민겠네

광주 24곳 原水서 총대장균군 검출

광주시내 24개 대중 목욕탕의 원수(原水)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됐다. 광주시는 "지난달 찜질사실 목욕장 35개소를 포함 목욕장 232곳을 대상으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해 30곳을 적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북구 A목욕탕의 경우 원수와 욕조수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고, 동구 B목욕탕 등 23개 목욕탕의 원수에서도 대장균군이 나와 재검사와 함께 개선명

령을 받았다. 서구 C목욕탕 등 5개소는 탕의실에 CCTV를 설치해 제거하도록 조치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목욕장 원수의 경우 100m에서, 욕조수는 1m 중에서 대장균군이 한마리라도 검출될 경우 부적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주정기자 jknews@

▲총대장균군=그 자체로 유해하지는 않으나 병원성 대장균과 함께 검출되는 대장균들의 무리. 오염의 지표가 된다. 연립뉴스

사범연수원생·유명 미술사도 '병역 비리'

검찰이 수사 중인 병역특례 비리사건에 사범연수원생과 유명 미술사가 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부지검은 20일 특례업체에 근무하며 지정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유명 미술사 최모(28)씨 등 특례자 3명을 적발해 병무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술사인 최씨는 200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B사에 병역특례요원으로 편입된 뒤 지정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세계미술대회 참석 준비를 위해 미술공연과 연습을 하며 부실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사범연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A(34·연수원 37기)씨가 특례업체에 급품을 건네고 부실근무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IT업체 B사에 특례요원으로 편입된 뒤 실제 근무는 하지 않은 채 고시 공부를 하는 대가로 4천여만원을 건네 혐의를 받고 있다. 연립뉴스

해병대 58년만에 1000기 전역

"해병대 1000기 전역을 명 받았습시다"

지난 1949년 1기를 맞은 '귀신 잡는 해병'이 58년 만에 '1000기 전역자들'을 배출했다.

해병대 1사단은 2005년 6월21일 입소, 혹독한 훈련을 받고 정예해병으로 탈바꿈한 뒤 2년여간 국방의 의무를 마친 1000기 장병 96명에 대한 전역식을 가

졌다. 이들은 2년 전 경북 포항의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소해 6주간 신병교육을 받은 뒤 전국 해병대로 배치된 이후 이날까지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하게 부대로 전역식을 갖고 사회에 진출했다.

해병대는 1949년 4월15일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해병 1기가 탄생한 이후 56년만인 2005년에 1000기를 탄생시켰으며 현재 1048기가 교육훈련단에 입소해 무적 해병이 되기 위한 강인한 훈련을 받고 있다. 연립뉴스

영어교육의 새로운 대안 한국고중

한교 전화영어

기존 학습 위주의 교육방법으로 이론 영어 실력을 실질적인 영어능력의 향상을 이어주기 위해 한교와 우텔에서는 한국고원단체총연합회 산하의 영어개발기관과 함께 최상의 방법을 개발하여 여러분에게 가시적인 성과와 만족을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능력 향상의 최선은 1:1 전화영어수업이다"

매일 원어민과 전화대화를 통해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으로 영어공부의 새로운 대안입니다. 영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어려운 현실에서 전화영어 학습법은 이런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한교전화영어는 고객의 수준에 맞춘 맞춤형 원어민 1:1 영어학습법으로 고객의 영어능력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교전화영어의 장점

- 원어민과 1:1 수업, 수업시간동안 지속적인 케어로 학습효율이 높다.
- 일반 학원과 달리 말할 수 있는 시간이 긴 효율적인 영어 학습방법이다.
- 학원으로서의 이동시간 절약 및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 수강생의 레벨에 맞는 맞춤 수업이 가능하다.
- 교재이외에 레벨별 다양한 Topic 준비, 흥미를 가지고 학습이 가능하다.
- 우수한 원어민 선생님 확보 및 평가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다.
- 영어회화, TOEFL, TOEIC, IELTS 등 다양한 종류의 강좌가 있다.
- 현지직영 시스템을 통해 저렴한 수강비용 체계.

상담 및 문의: 1588-8010 www.waw05.com

영업사원 모집 문 의: 062-526-0509 011-9222-4562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신저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자기자랑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 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립을 위해 사회봉사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중등생 개인증득치료 및 발표력 향상
- 초·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특강 개설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E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 ★교육기간: 주1회 8주 2개월
- ★교육비: 무료(마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 ★교육장소: 롯데백화점점 제일B/D 3층
- ★접수방법: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습)

신청한 1일 마술교실체험 유치원, 초·중등학년 태권도장, 각·예능학년 ○각종행사, 마술 출장공연, 어린이 관련행사, 동원회, 교회행사, 아유회 ○어떤 행사라도 마술사가 신비하고 재미있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526-2500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제1회 시험 10월 14일 확정 -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취업 가능...

도로교통사고감정사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정부기관이나 사고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의뢰를 받아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교통사고조사 전문가를 말한다. WTO가 입국 중 교통사고와 사망률이 각각 1.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정부는 당사자간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진교통사고조사 문화화 선도를기 위하여 경찰청 주

실검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일부 전문가는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되며 신규 고용정책에 대해 업계와 당국의 관심은 매우 크다. (참고: 사고발생 약21만건, 사상자 약34만명, 이의신청분쟁 매년 수천건씩 증가, 이상 2005년 경찰청 발표)

시험과목으로는 교통관련법규 등

제1회 시험 국가공인자격 평균 60점 이상 합격

법적 공신력 부여, 조사 자료증거 채택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취업가능

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게 하거나 사고협상에 도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령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원직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사

4차목 객관식과 실무이며, 전 과목 평균 60점이면 합격이고, 응시자격은 만18세 이상으로 학력·경력·무관하다. 특히, 일반서점에 마땅한 수험교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응시자를 위한 교육원의 안내자료와 특별교육까지 준비돼 있어서, 국가공인 제1회라는 시험특성까지 감안하면 시험 첫해인 올해 유례 없이 많은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 탄생될 전망이다.

상담문의/(062)528-7788

- 자격인증기관: 경찰청
- 시험주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자료제공: 교통사고감정교육원